

역사·지리서 등 각종 편찬사업 활발

《고려사》·《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 등 ... 출판문화 융흥

국왕 중심의 역사기록인 《실록》의 편찬사업은 태종 이래 역대 임금의 가장 신경을 쓴 국책사업의 하나였지만, 그밖에도 특히 건국초기 100년간은 새 왕조의 기틀을 다잡기 위한 각종 편찬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중에도 전왕조인 고려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전반의 역사·지리서 편찬이 눈부셨는데, 이러한 편찬사업은 자연히 인쇄·출판문화의 융흥을 가져왔다.

조선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세종때 만들어진 '갑인자' (1434)와 세조때 만들어진 '을해자' (1455)가 인쇄문화의 주축을 이루어 이 두가지 활자본이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남아 전하고 있음은 이미 얘기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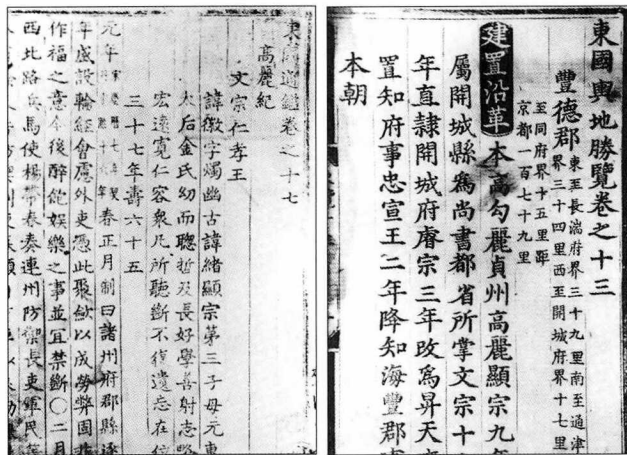
이 시기에 편찬된 고려시대 역사기록으로 쌍벽을 이루는 것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인데, 전자가 기전체(紀傳體)인데 비해 후자는 편년체인 것이 다른 점이다. 《고려사》(139권 100책)는 세종 말년에서 문종 초에 걸쳐 편찬되어 1454년(단종 2) 갑인자로 처음 간행되었다고 하나 초간본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듬해 을해자로 인쇄한 재간본과 세종때 을해자를 복각한 목판본이 연세대도서관 등에 전하고 있다.

《고려사절요》(35권 35책)는 문종때 김종서 등에 의해 편찬되어 1453년 갑인자로 간행됐는데, 이 초간본 전질은 일본에 있고 국내에는 그중 일부인 24책이 서울대 규장각 도서에 있다. 그뒤 중종때에 역시 을해자로 찍어낸 재간본도 규장각도서에 있는데, 이

책은 특히 편년사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아 뒷날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할 때 고려시대 부분은 이 책에서 많이 끌어냈다. (1968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 간행)

을해자에 뒤이어 1465년(세조 11) 주로 불교서적을 찍어내기 위해 새로이 주조한 동활자가 '을유자'이다. 이 활자는 훈구파의 중진으로 촉체(조맹부의 서체)에 능한 정난중(鄭蘭宗, 1433~1489)의 글씨를 바탕으로 삼아 만든 것인데, 불과 20년간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활자로 찍은 책은 많지 않다. 지난 1991년 보물 제1093호로 지정된 《벽암록》(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이 을유자본이다.

그런데 을유자는 글자꼴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1484년(성종 15) 갑진년에 이를 녹여 대소 30만자에 이르는 새 활자를 주조했다. 이 '갑진자'는 앞서의 갑인자와 을해자 다음으로 오래 사용되어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갑진자본으로 60여종이 국내외에 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통



갑진자로 찍은 《동국통감》(국립중앙도서관)과 계속자로 찍은 《동국여지승람》(서울대도서관).

감》도 이 활자로 인쇄됐다. 《동국통감》(56권 28책)은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으로, 세조때 최항·양성지 등이 편찬하다 중단했던 것을 1484년 서거정 등이 마무리지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1493년(성종 24) 계축년에 이르러 또다시 새 동활자를 주조해 중종대까지 약40년간 사용하게 된다. 이 '계축자'의 인본으로 대표적인 책이 《신증동국여지승람》(55권 25책)이다. 이 책은 성종때인 1481년 50권으로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두차례의 수정을 거쳐 1530년(중종 25)에 증보한 것으로, 우리나라 각지방의 연혁·성씨·풍속·산천·토산·고적·인물 등을 총망라한 종합지리지(地誌)이다. 이 책의 초간본은 거의 모두 임진왜란 중에 불타버려 완질본으로는 일본 교토대학에 있는 것이 유일하며, 국내에는 1611년(광해군 3) 초간본을 복각한 목판본이 있을 뿐이다.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 간행) (W)

출판저널

통권 제217호/1997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MAC 디자이너(경력자)를 찾습니다.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지원자격 : 출판 실무 경력 2년 이상/초대졸 이상/Photoshop · Illustrator · Quark X press 운용에 능통한 자
- 보 낼 곳 : (120-013)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5 동아아트빌라 1층 도서출판 대영사 · 좋은날
- 기타 자세한 문의는 T : 392-2588~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도서출판 **大英社 · 좋은날**

표지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548-5420,
 F.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